

# “위로하라 내 백성을!”

## ■ 이종윤 원로목사

선지자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한다. 이사가 때나 바벨론 포로기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메세지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이라 할 지라도 버리시거나 고통 중에 있게 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 외쳤다. 선지자의 과업은 백성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고 감화 감동적인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고 진노의 지팡이를 드시어 죄인들을 때리시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엔 위로와 소망도 주신다.

### 혼돈된 이 사회를 말씀으로 재창조해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적 영역을 책임진 교회가 혼돈에서 헤매이고 있으니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전체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백성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선 죄를 없애야 하고 그 다음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며 컷값대로 처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백성에게 영적 안위와 위로가 임한다. 이 같은 위로는 죽은 조상이나 우상이 줄 수 없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대속 자로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게 된다. 그의 구원의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창조되어야 한다.

### 메시아를 모신 자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골짜기 같은 음흉하고 거짓된 마음이 사라지고 산과 언덕같이 교만한 마음이 낮춰진다. 정치권의 여야가 당리당략에 치우쳐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야 기쁨이 심한 감정도 정리되고 모든 험한 곳 같은 강퍽한 심성도 퍼진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를 모신 자에게 참 위로와 평안히 임한다.

###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것 육체의 소욕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영구하지 못하다. 그러나 메시아를 모시면 노력의 때가 끝나고 죄악은 사함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풀과 꽃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

###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유대인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다. 우리 백성을 일제 36년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6·25의 폐허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자.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팔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매우 큰 상급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는 보응을 받게 된다.

### 하나님은 목자같이

하나님은 양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목자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 인도, 인내, 은혜, 애착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신다.

###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지혜, 위대하심은 어느 우상이나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창조주 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그에게 맡기는 이에게 달음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니 독수리처럼 비상 고공을 하며 승리와 희락을 맛보는 위로를 체험케 된다.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참 위로를 받게 하자.

-한국장로신문 2013년 9월 21일 발췌-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2021 사망자대회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교회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할 계획이오니, 참석이 가능한 성도님들은 백신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나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는 이번 주까지는 비대면예배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재개합니다. 또한, 사정상 교회 대면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중계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15대 장로 예비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본당 로비에서 '투표지 교환권'을 배부합니다. 제직회원들은 찬양예배 입장 전에 교환권을 받으셨다가 제직회 시간에 투표지 교환권을 제출하시고 OMR카드를 받아 투표하시면 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024\\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024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태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열,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정, 이상식·김경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포,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포,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b>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b>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손달익 Senior Pastor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a href="http://seoulchurch.or.kr/">http://seoulchurch.or.kr/</a>

## “ 내 인생에 있는 예수 흔적 ”

■ 갈 6:11-18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흔적들이 가득해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힘써 개척한 교회들을 찾아가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강요하며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같은 일을 당하며 혼돈에 빠졌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17절)고 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 사도의 증거가 몸에 새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 갈라디아교회의 아픔**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 갈라디아 지역 전도와 교회 양육을 위해 노력했고, 갈라디아 교회들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갈 4:14-15)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들이 변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급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갈 1:6) 그리고 격한 말로 책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아직 어렸던 갈라디아의 교회가 고통당한 것입니다.

- 바울의 강력한 도전**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와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다른 복음’을 주장하며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5:2)라고 했습니다. 사도직에 시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1:1)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며 진리를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응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원형대로 지키고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거룩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호기가 없습니다. 우리도 더욱 확실해 집시다. 더욱 강해집시다. 더욱 거룩한 용기를 가집시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단호하게 헌신하는 우리가 됩시다.

3. **예수 흔적이 있는 인생으로**  
 바울은 몸에 표(할례)를 새겼다 해서 하나님 백성의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능력이며 자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14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에 상처와 흔적들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야말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 입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예수 흔적이 있는 상처투성이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 5:10-12)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오광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오치열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46: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60(시 139)...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	93(9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갈 6:11-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내 인생에 있는 예수 흔적”...	손달의 목사	
* 찬 송 Hymn .....	341(36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양예배

오후 5시 ·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의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27:1 .....	인 도 자
찬 송 .....	83(83) .....	다 함 께
기 도 .....		최원석 집사
성 경 .....	행 8:1-3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어둠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		설 교 자
* 찬 송 .....	321(351)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 인도: 전재홍 목사  
II부 오후 7시 · 설교: 손달의 목사

기 도 ... I부: 송미령 권사 II부: 허숙권사	인 도 자	
성 경 .....	행 8:4-25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손달의, 안용곤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양대						봉헌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갈 6:17)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해란	금주의 성구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II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요예배	I부 예배	오전 11시	본당
	II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소식

### ◆ 모임

#### 1. 제직회 공고

- 안건 : 제 15대 장로 예비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
- 일시 : 오늘 찬양예배 후
- 장소 : 본당

### ◆ 알림

####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5.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7.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8.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 장례

1. 故 전복순 권사(4교구 윤성남 집사의 모친, 이영희 권사의 시모) / 10월21일(목) 별세, 23일(토) 발인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일부 예배 - 대면, 수요일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교회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440명	458명	1,898명	428명	1,955명

## 🌳희망의 목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은 성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았다.

그가 무엇을 희망했느냐보다는 그 희망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물어야 한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희망의 햇빛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곤두박질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희망이 없다고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민족적 기도가 필요한 때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오늘의 고난을 타개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